

# 〈김영철전〉 흥세태

- 갈래 : 전쟁소설, 한문 소설, 역사 소설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 17세기 (명·청 교체기) / 후금, 명나라, 조선
- 성격 : 사실적, 비판적, 비극적
- 구성 : 일대기 구성
- 주제 : 전쟁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민중의 고초와 애환.
- 특징 : ①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인 순행적 구성으로 작품이 서술됨.  
②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사실감과 현실감을 줌.  
③ 민중적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위정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음.  
④ 전기적 요소를 배제하고 당대 민중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림

## #줄거리

발단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자,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요청하고 김영철이 군역으로 참전함.
전개	후금이 포로가 된 영철이 후금의 여자와 결혼해 살다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 탈출함.
위기1	명나라로 간 영철이 명나라의 여자와 결혼해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기 위해 떠남.
위기2	고향에 돌아온 영철이 조선 여자와 결혼해 살다가 병자호란 등 여러 전쟁에 참전함.
절정	영철이 적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유림이 몸값을 치르고 영철을 구한 후 그 몸값을 갚을 것을 독촉함.
결말	고향으로 돌아온 영철이 몸값을 갚고 가난하게 살다가, 늙어서 군역을 면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침.

## # 주인공 김영철의 생애

1. 북쪽 전주(후금)에서	3. 남쪽 동주(명나라)에서	5. 고국(조선)에 돌아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아홉 살에 부친과 함께 명나라의 연합군으로 참전했다가 오랑캐(후금) 장수 아라나의 포로가 된 후 전주로 끌려감</li> <li>○ 두 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던 김영철은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받음</li> <li>○ 아라나는 자신의 제수를 영철과 혼인시키고, 영철은 두 아들 득복과 득건을 낳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라나로부터 함께 도망친 명나라 사람 전유년의 집에 함께 살게 됨</li> <li>○ 전유년의 누이동생과 결혼하여 두 아들 득달과 득길을 낳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 친척은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은 남은게 없었음</li> <li>○ 이군수라는 사람이 영철을 효자라고 여겨 자기 딸을 시집보냄</li> <li>○ 전쟁이 계속되며 오랑캐(후금)의 구원병으로 여러 번 종군하게 됨</li> <li>○ 조선에서 의상, 득상, 득발, 기발을 낳았으나 자식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을까 두려워함</li> </ul>
2. 탈출 과정	4.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6. 영철의 말년
명나라 사람 전유년 등과 함께 아라나의 천리마를 타고 도망침	조선의 진하사 일행을 태운 배에서 연생이라는 동향 사람을 만나, 귀국하는 연생의 배를 몰래 타고 돌아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 예순이 넘는 나이에 자모산성을 방비하는 일을 맡음</li> <li>○ 20여 년간 성을 지키다 84세 되던 해에 죽음</li> </ul>
<p>★ 전쟁으로 인해 조선 백성 김영철의 고달픈 생애가 계속되었음을 강조함</p> <p>★ 평범한 백성들의 삶과 고통에 주목하면서 당시 현실 상황을 드러내려 함</p>		

## 작품에 나타난 승명반청 사상

명나라와의 관계	후금(청나라)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장수 임경업과 명나라 장수가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밀약을 맺음</li> <li>○ 실제 전투에서 총알 없는 총, 화살촉이 빠진 화살을 사용하여 서로의 피해를 줄이려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랑캐 둘이 조선 장수 임경업을 다그치며 몰아붙임</li> <li>○ 오랑캐가 조선에 구원병을 보내라는 명령을 내림</li> <li>○ 오랑캐 장수 아라나가 권력을 남용하여 조선의 병사 김영철을 함부로 죽이려 들</li> </ul>
<p>▼</p>	
명나라에는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후금에는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냄	
명나라는 명나라라고 지칭하지만, 후금(청나라)은 오랑캐로 표현하고 있음	

## <김영철전>

3502 나은결

김영철

주제 - 전쟁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 (위정자들의 무능) 위정자 : 정치를 하는 사람.

갈래 - 전쟁소설

성격 - 사실적, 비극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17세기 초 후금과 명나라, 조선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던 시기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사실적으로 전개됨.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전달함.
-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성격과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함.
- 민중들이 겪었던 시대적 아픔이 사실적으로 드러남.
- 인물들이 영웅적인 면모를 지니지 않고 평범함.
- 민중적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위정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남.

### <줄거리>

조선 광해군 때, 명나라의 요청으로 후금과의 싸움에 동원된 영철은 후금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때 후금 장수 아라나가 영철을 살려 자신의 집이 있는 건주로 데려간다. 영철은 아라나의 주선으로 혼인도 하고 두 아들도 얻게 된다. 그러나 고향을 그리워하던 영철은 전유년등 명나라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등주로 향하게 되는데, 다시 이 곳에서 정유년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자식 둘을 얻었으나 고국에 돌아가려는 일념으로 마침 등주에 있던 조선의 외교 사절의 일원을 만나 14년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된다.

고향의 가족들과 재회한 김영철은 조선의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 넷을 두고 살아가지만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과의 전쟁에 세 번이나 참전하게 된다. 그때마다 아라나와의 관계가 얽혀 후금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으나 영철의 상관이 몸값을 지불하여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몸값은 영철 자신이 집안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야 했다. 이후 영철은 네 아들과 함께 산성을 지키며 살다가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김영철** :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 전쟁에 참여하여 포로가 되기도 하고, 고향에 도착해서도 군역을 면하지 못하는 등 괴로운 일생을 보냄.

**아라나** : 청나라 장수 천리마를 잃은 것에 대해 영철에게 분노하지만, 유림이 비싼 값을 치르자 영철을 풀어주는 장면 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증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음.



### <김영철전의 갈등 양상>

이 작품은 김영철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쟁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당대 민중들의 보편적 애환을 그려낸 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이라는 주인공의 일대기가 서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인공의 일대기란 것이 다수의 주변 인물들이 늘어놓아진 가운데 그들과 더불어 현실과의 힘겨운 갈등과 대결을 벌여 나가는 모습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주목할 포인트다. 이 작품의 중심적 갈등은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의 갈등이다. 서술자의 시점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보조 인물의 삶의 애환을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데까지 미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작중 인물이 하나같이 현실의 역경을 헤집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 <김영철전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다른 작품과의 차이점>

	박씨전, 임경업전	김영철전
내용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의 <u>영웅적 활약상을 그림</u>	전쟁의 혼란 속에서 민중이 겪는 가족의 이산으로 인한 아픔과 종군의 괴로움, 군역의 가혹함 등을 <u>민중의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그림</u>
집필 동기	전란으로 상처 입은 민족적 자존심의 <u>보상</u>	<u>민중에게 고통을 주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u>
갈등 양상	주인공과 <u>적대적 세력 간의 갈등</u>	주인공과 <u>사회 현실의 갈등</u>

### <김영철전 상세 해설>

홍세태의 김영철전은 17세기 후금과 명나라의 전쟁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전쟁의 여파로 조선의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김영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속 주인공인 김영철은 영웅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당시 민중의 삶을 보여주는 인물로, 김영철의 일대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민중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당시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작품들인 임경업전이나 박씨전이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김영철전은 평범한 사람이 역사적 격동기에 겪는 가족의 해체로 인한 아픔과 전쟁에 출전하는 괴로움,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되는 군역의 가혹함 등을 통해 민중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다른 작품들과 달리 사실적이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김영철전> - 홍세태

3307 손연희

##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전쟁 소설
성격	사실적, <u>비극적</u>
배경	17세기(명·청 교체기) / 후금, 명나라, 조선
주제	전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민중의 고초와 애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인 순행적 구성으로 작품이 서술됨.</li> <li>● <u>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사실감과 현실감을 줌.</u></li> <li>● <u>민중이 겪었던 시대적 아픔을 사실적으로 드러냄.</u></li> <li>● <u>민중적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위정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남.</u></li> </ul>

## <줄거리>

광해군 때,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자, 명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청한다. 영철은 출전하였다가 후금의 포로가 되어 결혼하여 살게 된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그러다 붙잡혀 발뒤꿈치가 잘리는 형벌을 두 번이나 당하지만 결국 탈출한다. 영철은 같이 도망한 명나라 사람 전유년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동생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 그러나 영철은 다시 고향으로 가기 위해 처자식을 버리고 떠나 고향에 이른다. 그 후에도 영철은 병자호란을 비롯한 다른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거기서도 죽을 고비를 넘긴다. 청나라 황제 앞에서 축하인사를 맡게 된 영철은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지만 그 선물을 탐낸 유림 장군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유림 장군은 영철이 청나라 주인에게서 풀려날 때 치렀던 몸값까지 치르게 한다. 영철은 늙어서도 군역을 면하지 못하고 산성을 지키며 중국 땅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일생을 마친다.

## <등장인물>

김영철	소설의 주인공, 후금과의 전쟁으로 징집되지만 결국 후금의 포로가 됨.
아라나	김영철이 후금의 포로가 되었을 때 살려 준 조력자.
전유년	김영철이 후금의 포로에서 벗어나 명나라로 도망갔을 때 도와준 조력자.
의상, 득상, 득발, 기발	김영철이 명나라에서 도망쳐 조선으로 돌아와 낳은 자식들.

### <다른 작품과의 차이점>

	박씨전, 임경업전	김영철전
내용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의 영웅적 활약상을 그림.	전쟁의 혼란 속에서 민중이 겪는 가족의 이산으로 인한 아픔과 중군의 괴로움, 군역의 가혹함 등을 민중의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그림.
집필 동기	전란으로 상처 입은 민족적 자존심의 보상	민중에게 고통을 주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
갈등 양상	주인공과 적대적 세력 간의 갈등	주인공과 사회 현실의 갈등



## 김영철전 -홍세태

### # 역사적 배경과 상황 인식

17세기 초 후금과 명나라, 조선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로, 조선 백성 김영철의 전쟁 체험과 인생 역정을 다룸. 후금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낮추어 보는 당시 지배층들의 인식이 나타나는데, 이는 후금이 동북아의 신흥 강국으로 자리 잡던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강함.

### # 작품의 구조

발단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자,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요청하고 김영철이 군역으로 참전함
전개	후금의 포로가 된 영철이 후금의 여자와 결혼해 살다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 탈출함
위기1	명나라로 간 영철이 명나라의 여자와 결혼해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기 위해 떠남
위기2	고향에 돌아온 영철이 조선 여자와 결혼해 살다가 병자호란 등 여러 전쟁에 참전함
절정	영철이 적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유림이 몸값을 치르고 영철을 구한 후 그 몸값을 갚을 것을 독촉함
결말	고향으로 돌아온 영철이 몸값을 갚고 가난하게 살다가, 늙어서도 군역을 면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침

### # 등장인물

- 김영철 : 소설의 주인공, 평안도 영유현 사람. 만주(후금)에 자식 두 명, 명나라에 자식 두명, 다시 조선에 자식 네 명을 둬. 후금과의 전쟁으로 후금의 포로가 됨.
- 아라나 : 강홍립을 따라 명나라 원군으로 출정한 김영철을 포로로 잡았으나, 전투 중 사망한 동생과 닮았다 하여 누르하치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데려옴. 자신의 제수를 영철과 혼인시킴
- 전유년 : 김영철과 함께 아라나의 집에서 일하다 말을 훔쳐 함께 탈출함. 자신의 누이를 영철과 혼인시킴
- 임경엽 : 김영철의 편지를 전달해줌.
- 의상, 득상, 득발, 기발 : 김영철이 명나라에서 도망쳐 조선으로 돌아와 낳은 자식들

## # 작품 정리

- 갈래 : 고전소설, 전쟁소설
- 성격 : 사실적, 비판적, 비극적
- 배경 : 17세기 (명·청 교체기)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전란으로 인해 초래된 민중의 삶의 고초와 애환
- 의의 : 조선 민중의 애환을 지극히 사실주의적인 기법을 그려냄

## # 작품의 주요 point

- 일대기 구성 : 전란으로 인한 고난과 애환을 겪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림
- 민중 소설 :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중이 겪은 이산의 아픔과 종군의 고로움, 군역의 가혹함 등을 민중의 입장에서 서술
- 사실주의 :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의 비극성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

## # 작품분석 (의미지도)

